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주관성 연구

Subjectivity Study on the Employment Supporting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College

이재환, 성혁제
순천제일대학교 사회복지과

Jae-Hwan Lee(jhlee@suncheon.ac.kr), Hyeok-Je Sung(sung@suncheon.ac.kr)

요약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학생의 취업지원에 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갖는 주관적인 인식을 유형화하고, 이러한 인식 유형별 특성을 바탕으로 장애대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데 있다.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인식 연구 결과, 외부의존형(제1유형), 장애친화형(제2유형), 수요맞춤형(제3유형), 그리고 내부역할강조형(제4유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 차원의 장애학생 취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바탕으로 취업지원센터를 비롯한 기존 대학 내 취업지원 체계를 장애학생의 수요에 맞는 장애친화적인 인프라로 재구축해야 하며, 여기에 더하여 장애학생을 채용하는 산업체와의 긴밀한 취업연계체계 구축과 정부 차원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당국의 노력이 병행될 때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중심어 : | 장애학생 | 취업지원 | 인식 연구 | Q방법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subjective perception types and needs of interested group on the employment supporting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college by Q methodology, then to search for political measures to support employment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the implication of the sorted subjective perception type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there are four major sorts of subjectivities on the employment supporting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college : external dependence(Type1), disability-friendly (Type2), demand tailored(Type3), internal role emphasis(Type4).

The result of the study could check that there was necessary reconstruction to disability-friendly infrastructure based on interest and willingness on the employment supporting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college. In addition to that there was necessary to job creation of government, to build network of industry to successful labor market entry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 keyword : | Students with Disabilities | Employment Supporting | Perception Study | Q Methodology |

* 본 연구는 2013학년도 순천제일대학교 교내학술연구과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임.

접수일자 : 2014년 10월 08일

심사완료일 : 2014년 10월 31일

수정일자 : 2014년 10월 31일

교신저자 : 이재환, e-mail : jhlee@suncheon.ac.kr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국민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이나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능하게 하는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1].

하지만 장애인을 비롯한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사람에 대한 교육의 기회는 무상교육 이후의 고등교육이나 성인교육으로 연결되는 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정부 차원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 지난 2003년 이후,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해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 등은 상당부분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교육의 기회를 갖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일부 장애인 가운데에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는다 하더라도 졸업 후 직업능력의 부족 등 인적자본의 취약성과 사회의 편견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근로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회와 단절되어 고립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이러한 교육적 측면과 더불어 노동과 직업활동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측면은 장애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이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지역 내에서 적극적인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2].

매년 10월 30일은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로, “일(1)이 없으면(0), 삶(3)도 없다(0)”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 그만큼 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3].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장애 그 자체로 인해 다양한 기회나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 진술한 바와 같이 고등교육이나 성인교육, 더 나아가 고용과 관련된 직업활동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인적자본이론에서는 교육을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교육수준과 노동시장 진입의 관계를 다룬 다수의 연구에서 학력은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수로 파악되고 있다[4-10].

이와 관련하여 지난 1995년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장애를 가진 대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졸업한 장애학생의 38.2%만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 차원의 장애인 고등교육에의 접근성 실현이 성공적 학교생활과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1].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2127호) 제30조 제1항에서는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 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2]. 하지만 지난 2011년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 결과에서와 같이 현행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 같은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은 곳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학 차원의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인식 부족과 함께 지원 체계의 부재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형태의 선행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13-18].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특별전형 이후 대학의 장애학생 욕구 및 지원 실태, 교육 접근성, 심리적 측면과 관련한 부적응 등의 문제를 설문을 통해 양적으로 접근하는데 머물고 있어, 보다 원론적인 접근에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 지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들이 갖는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욕구와 더불어 새로운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메커니즘(mechanism)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다양한 표본에 대한 표집과 함께 장애학

생들의 대학생활 및 취업 지원 등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나 태도, 욕구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학생 당사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접근을 통해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태도, 가치 등을 유형화하는데 효용성이 높은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Q를 활용한 연구는 질적이지만 주관성을 통계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으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동시에 시도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질적 판단을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에 효용성이 높다[19].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장애로 인하여 직업선택의 범위가 협소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장애학생들의[20] 성공적인 직업선택을 위하여 그 동안 대학이 어떠한 역할이나 노력 등을 기울여 왔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등 장애대학생의 취업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보다 실질적인 장애대학생 취업지원과 관련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장애학생의 취업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지원에 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의 사람들이 갖는 인식유형은 어떠하며,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가?
- 셋째, 이들 인식유형을 통해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위하여 찾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검토

지난 1995년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특별전형 제도가 실시된 이후,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게 된 장애학생

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장애학생의 수는 그리 높지 않다. 교육부(2011)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대학생 취업률이 2008년 50.4%에서 2009년에는 44.4%, 2010년에는 38.2%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 특히, 이들 장애학생들의 취업직종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직종이 6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이는 장애학생들의 전공 분야가 장애친화적인 사회복지 전공 분야에 많고, 장애학생에게 지원되고 있는 정책분야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까지 논의된 많은 선행연구들이 장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이나 진로 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적하고 있고, 장애학생들은 장애와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비장애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23].

이러한 이유 등으로 장애학생 취업지원과 관련한 후속연구를 통해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24-29].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이들 선행연구 가운데 한 연구에서는 산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장애인이 가진 직업기술이나 태도에 고용주들은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27],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분하고,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장애 및 건강 관련 특성은 노동시장 진입에 부정적이나 인적자본이나 고용과 관련한 특성은 직업훈련 등의 과정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8], 후속연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통해 직업기술이나 태도 등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역량을 강화시킬 때,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29].

이와 같이 장애대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고, 진로를 찾아 나가는 중요한 과정에서 장애와 더불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더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이는 장애대학생들의 직업에서의 성공을 도울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

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장애대학생들이 취업지원 전담 기구와 서비스 부족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결과로 제시하였고, 진로상담과 취업상담에 관해 장애대학생들의 요구가 높음을 보여주었다[30].

또한 장애대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취업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으며, 장애유형 및 개인차를 고려한 보다 개별적이고 실제적인 취업지도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1].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대학에서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위하여 어떠한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들을 경주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진술한 바와 같이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설문을 통한 전통적인 양적접근을 통한 장애학생 취업지원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 왔거나, 비교적 적은 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바, 후속연구를 통해 장애학생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대상 인구집단에 대한 표집과 함께 질적 접근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주관성을 객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Q방법을 연구에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행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갖는 주관적 인식을 찾고, 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문헌연구와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주관성을 객관적으로 밝혀내는데 효용성을 가진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32][33].

1. 표집방법

1.1 Q모집단 표집

Q모집단은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지원과 관련한 대학

내외 이해관계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장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진술문으로 구성하였고, Q모집단 표집은 문헌조사와 톰슨(Thomson, 1966)[34]이 제시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Q모집단 표집을 위한 진술문은 사실 문헌을 통해서보다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면담을 통해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Q는 결국 사람에 관한 연구여서 사람과 그들의 의견으로부터 출발한다[19]. 이러한 문헌연구와 심층면담을 통해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주관성을 찾기 위한 진술문 108개를 확보하였다.

1.2 Q표본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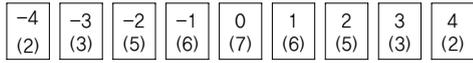
확보된 108개의 Q모집단을 장애학생 취업지원과 관련한 대학 내외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Q모집단 가운데 공통된 의미를 지닌 진술문들을 범주화하도록 하였고, 추가적으로 대학 및 현장 전문가 2명의 자문을 얻어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주관성을 찾기 위한 진술문을 재범주화하였다. 체계적인 표집을 위하여 무작위로 추출하되, 비례적 방법으로 Q표본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39개의 진술문을 Q표본으로 선정하였다.

1.3 P표본 선정

Q유형화 작업은 톰슨(Thomson)이 제시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25명의 P표본을 추출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Q분류를 진행하였다. Q방법에서는 조사대상인 P표본의 수는 요인을 생성하고, 요인들 간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19][32].

1.4 Q표본의 분류

Q표본의 분류는 연구 참여자에게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지원과 관련한 진술문이 기록된 카드를 배부하고, 제시된 분류표에 주관적 의견(동의, 부정, 중립)을 분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Q표본 분류는 그림과 같이 강제 분류 방식에 따라 -4(2), -3(3), -2(5), -1(6), 0(7), 1(6), 2(5), 3(3), 4(2)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가장 부정 가장 동의

그림 1. Q표본 분포도(N=39)

2.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분류된 Q표본은 PQMethod 2.1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입력하였고, 센트로이드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출된 요인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요인 1과 7(5°), 2와 3(15°), 2와 4(-5°), 2와 6(-60°), 2와 7(10°), 3과 4(-80°), 4와 5(10°), 4와 6(85°), 4와 7(10°), 1과 4(-10°)로 10차례에 걸친 판단적 회전을 실시하였고, 각 진술문에 대한 양극단 요인(양극단 점수(Z-Scores)가 ±1.0 이상인 진술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양극단 진술문 분류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주관성을 분석하였다.

Q연구를 위한 진행과정은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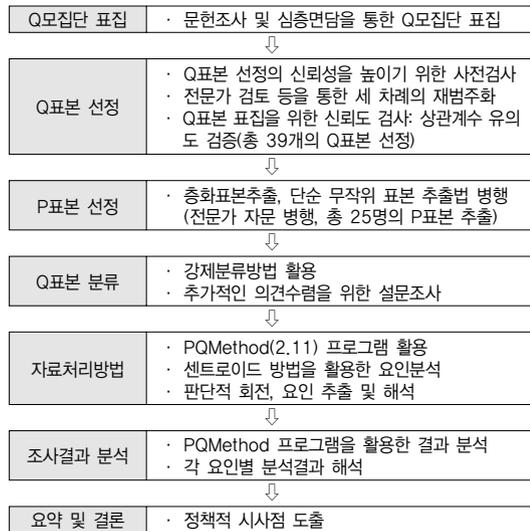


그림 2. Q연구를 위한 진행과정

IV. 결과분석

1. Q요인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는 PQMethod(2.11) 프로그램을

을 활용하였으며,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와 관련된 주관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4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지원에 관하여 비슷한 생각이나 의견, 태도 등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집단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본 연구에서 판단적 회전 이전의 초기 설명변량은 46%(18+10+10+8)로 나타났으며, 10차례의 판단적 회전 결과 6%가 늘어난 52%(22+9+9+12)로 나타나 4개의 요인이 39개의 Q소트 총변량 중 52%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40% 이상의 누적 설명량을 갖게 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50% 수준을 넘어서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35].

분석결과 나타난 P표본의 요인행렬과 연구 참여자인 P표본의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인은 [표 1]과 같다.

표 1. P표본의 요인행렬 및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인

| 구분 | Factors | | | | Background Variables | | | |
|-------------|---------|---------|---------|----------|--|----|-----|------|
| | 1 | 2 | 3 | 4 | 구분 | 성별 | 연령 | 경력 |
| P01 | 0.4004* | -0.0642 | 0.2752 | -0.2733 | 교직원 | 남 | 50대 | 15/5 |
| P02 | 0.0482 | -0.0437 | 0.5997* | 0.0138 | 산업체 | 여 | 30대 | 3/0 |
| P03 | 0.5189* | 0.1683 | 0.4076 | -0.1634 | 교직원 | 남 | 20대 | 2/2 |
| P04 | 0.4300 | 0.6255* | 0.0031 | -0.0789 | 교직원 | 여 | 30대 | 3/8 |
| P05 | 0.0030 | 0.6530* | 0.2171 | 0.1988 | 교직원 | 여 | 20대 | 1/4 |
| P06 | 0.5285* | -0.1064 | 0.0937 | -0.0872 | 교직원 | 남 | 40대 | 21/8 |
| P07 | 0.1983 | -0.2406 | 0.2663 | -0.0200 | 교직원 | 여 | 20대 | 3/2 |
| P08 | 0.7131* | 0.3055 | 0.1049 | -0.1619 | 교직원 | 여 | 30대 | 0/7 |
| P09 | 0.4266* | -0.0042 | 0.2115 | -0.2511 | 교수 | 남 | 60대 | 10/0 |
| P10 | 0.5464* | -0.2961 | 0.1174 | 0.3500 | 교수 | 남 | 50대 | 15/0 |
| P11 | 0.3995 | -0.4162 | 0.1314 | -0.4405 | 비장애학생 | 남 | 20대 | - |
| P12 | 0.5190* | -0.0013 | 0.2024 | 0.2095 | 비장애학생 | 남 | 20대 | - |
| P13 | 0.2466 | -0.0100 | 0.3161 | -0.2765 | 비장애학생 | 남 | 20대 | - |
| P14 | 0.2450 | 0.2083 | -0.4005 | -0.1919 | 비장애학생 | 남 | 20대 | - |
| P15 | 0.2357 | 0.0640 | -0.3674 | -0.3521 | 비장애학생 | 여 | 20대 | - |
| P16 | -0.0100 | 0.0503 | 0.3480* | 0.1145 | 비장애학생 | 여 | 20대 | - |
| P17 | 0.2727 | -0.2063 | 0.1218 | -0.0373 | 비장애학생 | 여 | 20대 | - |
| P18 | -0.0279 | 0.3396* | 0.2057 | 0.2410 | 비장애학생 | 남 | 20대 | - |
| P19 | 0.5287* | -0.1083 | 0.3541 | 0.1526 | 교수 | 남 | 40대 | 14/0 |
| P20 | 0.1732 | 0.0866 | -0.1251 | -0.1901 | 장애학생 | 남 | 20대 | - |
| P21 | 0.0500 | -0.2852 | 0.0108 | -0.5352* | 장애학생 | 남 | 20대 | - |
| P22 | 0.4975 | -0.0267 | -0.2639 | 0.5820 | 산업체 | 여 | 40대 | 3/8 |
| P23 | 0.6072 | -0.0013 | -0.2759 | 0.5679 | 산업체 | 여 | 40대 | 6/2 |
| P24 | 0.6646 | -0.1325 | -0.2487 | 0.6057 | 산업체 | 남 | 40대 | 12/9 |
| P25 | 0.4365 | -0.2430 | -0.2503 | 0.2309 | 산업체 | 남 | 30대 | 7/2 |
| 고유값 | 4.1767 | 2.1491 | 2.2616 | 1.6455 | | | | |
| 설명변량 (%) | 18 | 10 | 10 | 8 | 최초 요인별 설명변량 | | | |
| 누적 설명변량 (%) | 22 | 9 | 9 | 12 | 판단적 회전(10회) 이후의 설명변량 | | | |
| 누적 설명변량 (%) | 22 | 31 | 40 | 52 | 최초 설명변량(46%)의 적재치와 비교할 때, 6%의 설명력을 더 가짐. | | | |

분석 결과, 정의변수의 수는 요인1이 8개, 요인2가 3개, 요인3이 2개, 요인4가 1개 등 14개로 나타났으며, 변이계수는 4가지 요인 모두 0.8로 나타나 요인간 편차의 정도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복합신뢰도는 4개 요인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Q분류가 강제분포 체계를 활용하였고, Q소팅에 있어 연구자 중심이 아니라 연구참여자인 P표본에 의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요인별 표준오차에 있어서는 요인 1, 2, 3은 상대적으로 항목간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고, 요인4는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항목간 관련성이 낮게 나타났다[표 2].

표 3. 각 진술문에 대한 요인가

| No | Q-Statements | Factor Arrays | | | |
|----|--|---------------|----|----|----|
| | | 1 | 2 | 3 | 4 |
| 01 | 대학은 장애학생을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시키는 메커니즘이 부족하다. | -2 | 1 | 2 | 2 |
| 02 |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적 태도는 장애학생의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0 | -4 | 3 | -2 |
| 03 | 대학의 취업지원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3 | -1 | 0 | 0 |
| 04 | 산업체의 장애인 채용 의지가 장애학생의 취업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 4 | 3 | 1 | 3 |
| 05 | 작업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장애학생의 취업은 기대하기 어렵다. | -1 | -3 | -1 | -3 |
| 06 | 장애 친화적인 대학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 0 | -2 | 1 | 3 |
| 07 | 장애로 인한 취업 애로사항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 2 | 0 | 4 | 1 |
| 08 | 장애특성을 고려한 현장실습 및 지역사회 연계가 부족하다. | -1 | 1 | 1 | 1 |
| 09 | 장애학생 개인의 능력과 선호도 등을 바탕으로 직업적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 2 | -4 | 4 | 0 |
| 10 |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대학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0 | 1 | 0 | 4 |
| 11 | 장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이 없다. | -4 | -1 | -2 | 1 |
| 12 | 장애학생 취업과 관련하여 대학 차원의 홍보가 부족하다. | -2 | 2 | 0 | -4 |
| 13 | 장애학생 취업은 장애학생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 2 | 0 | -2 | -1 |
| 14 | 장애학생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 내 취업상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 -2 | 0 | -3 | -2 |
| 15 | 장애학생 취업지원에 대한 대학의 인식이 매우 낮다. | -3 | 0 | 1 | 4 |
| 16 | 장애학생 취업지원은 구직상담에서부터 취업정보 제공, 진로지도, 취업알선 등 종합적이어야 한다. | 2 | 4 | 2 | 0 |
| 17 |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0 | -2 | 2 | -3 |
| 18 | 장애학생에 대한 취업 지원은 사회활동 참여 기회 제공과 함께 사회적 재활을 도모하는데 의미가 있다. | 0 | -3 | 0 | -1 |
| 19 | 장애학생에 대한 취업지원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3 | 2 | -1 | -3 |
| 20 | 장애학생에 대한 취업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2 | -1 | -2 | 0 |
| 21 | 장애학생에 대한 현장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 2 | 2 | 3 | 1 |
| 22 | 장애학생은 직업을 갖기 위한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 -4 | 0 | -1 | 1 |
| 23 |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의 취업지원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 0 | 3 | 2 | 0 |
| 24 | 장애학생을 위한 졸업 전 단기집중식 취업훈련만으로는 직장적응에 필요한 태도와 기술 등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 | -1 | 0 | -3 | 0 |
| 25 |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다. | -3 | 1 | 1 | 1 |
| 26 |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전공 지도교수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1 | -2 | 0 | -2 |
| 27 | 장애학생의 능력과 취업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 1 | -1 | -2 | -2 |
| 28 | 장애학생의 대학에서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교육이 필요하다. | -1 | -1 | -1 | 2 |
| 29 | 장애학생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지역 산업체 직무분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 | -2 | -1 | 0 | 2 |
| 30 | 장애학생의 직업탐색 및 직업 적응을 위한 별도의 교과과정 마련이 필요하다. | 1 | 4 | -4 | 2 |
| 31 | 장애학생의 취업지원을 위한 대학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 1 | 3 | -1 | 0 |
| 32 | 장애학생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성실함과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1 | -2 | 1 | -1 |
| 33 | 정부 차원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 3 | 2 | 3 | 3 |
| 34 | 지역 내 장애인직업재활기관과의 연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1 | -3 | -1 | -1 |
| 35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참여 기관별 명확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 0 | -2 | -4 | -1 |
| 36 | 추수지도(follow-up service)를 통해 지속적인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 | 0 | -2 | -4 |
| 37 | 취업에 대한 인식개선은 장애학생 뿐 아니라 보호자, 대학 관계자 등 모두에게 필요하다. | 3 | 1 | 2 | -2 |
| 38 |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특수직업훈련기관 위탁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 -1 | 1 | -4 | 2 |
| 39 | 학교와 산업체의 교육과 복지의 요소에 대한 정책 당국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4 | 2 | 0 | -1 |

표 2. 요인별 특성

| 구분 | Factors | | | |
|---------------------------|---------|-------|-------|-------|
| | 1 | 2 | 3 | 4 |
| No. of Defining Variables | 8 | 3 | 2 | 1 |
| Average Rel. Coef. | 0.800 | 0.800 | 0.800 | 0.800 |
| Composite Reliability | 0.970 | 0.923 | 0.889 | 0.800 |
| S.E. of Factor Scores | 0.174 | 0.277 | 0.333 | 0.447 |

요인분석을 통한 유형화는 각 요인별 표준점수가 ±1 이상인 항목과 다른 요인과 구별되는 각 요인별 특징을 나타내는 진술문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각 요인별 양극

단 진술문(±4)과 이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나타난 각 진술문에 대한 요인배열은 [표 3]과 같다.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요인 간 상관관계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4개의 요인이 각각 상호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Q연구에서는 요인을 추출해 내는데 의미를 두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론에서의 요인분석과는 차이가 있으며, 상관관계 계수에 의존하지 않는다[표 4].

표 4. 요인점수 간 상관관계

| | Factor Scores | | | |
|---|---------------|--------|--------|--------|
| | 1 | 2 | 3 | 4 |
| 1 | 1.0000 | | | |
| 2 | 0.3021 | 1.0000 | | |
| 3 | 0.2775 | 0.0459 | 1.0000 | |
| 4 | -0.1532 | 0.2580 | 0.1829 | 1.0000 |

2. 모든 유형에 일치하는 진술문

분석과정을 통해 추출된 4개의 유형에서 비슷한 점수를 얻은 항목을 나타내는 합의 항목(consensus statements)은 모두 5개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도 $p=0.05$ 수준에서 5개의 진술문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4개의 요인에 걸쳐 나타난 어떠한 2개의 표준점수의 차이가 1.00을 넘지 않는 항목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표 5. 합의항목(Consensus Statements)

| Q-Statements | Factors | | | | | | | |
|----------------|---------|-------|-----|-------|-----|-------|-----|-------|
| | 1 | | 2 | | 3 | | 4 | |
| | RNK | SCORE | RNK | SCORE | RNK | SCORE | RNK | SCORE |
| 20.부적절한 지원 | -2 | -1.08 | -1 | -0.34 | -2 | -1.20 | 0 | 0.00 |
| 21.현장중심의 교육지원* | 2 | 0.68 | 2 | 1.03 | 3 | 1.37 | 1 | 0.47 |
| 24.단기프로그램의 한계 | -1 | -0.71 | 0 | -0.28 | -3 | -1.37 | 0 | 0.00 |
| 26.지도교수의 관심 | -1 | -0.39 | -2 | -0.76 | 0 | 0.18 | -2 | -0.95 |
| 33.정부 일자리 창출* | 3 | 1.43 | 2 | 1.13 | 3 | 1.37 | 3 | 1.42 |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위해 현장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학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취업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전공 지도교수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유형에 일치하는 진술문에서 나타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성공적 취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며, 어떠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인지 등 장애학생의 성공적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각 유형별 양극단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설문 답안을 통해 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장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유형별 특성

장애학생들의 성공적인 직업선택을 위하여 그 동안 대학이 어떠한 역할이나 노력 등을 기울여 왔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등 장애대학생의 취업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보다 실질적인 장애대학생 취업지원과 관련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된 연구결과, 4개의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인식유형은 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의존형(제1유형), 장애친화형(제2유형), 수요맞춤형(제3유형), 내부역할강조형(제4유형)으로 명명하였다.

3.1 제1유형: 외부의존형(external dependence)

제1유형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양극단 진술문 가운데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4)은 Q4와 Q39이며,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4)은 Q11과 Q22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학생의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장애학생을 채용하는 산업체의 채용의지가 중요하고, 무엇보다 학교와 산업체의 교육과 복지에 대한 정책 당국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학에 장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이 없고, 장애학생은 직업을 갖기 위한 역량이 비장애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6. '제1유형'에 동의/비동의하는 Q항목과 표준점수

| Q-Items | Z-Score |
|-------------------|---------|
| 4.산업체의 채용의지 | 1.770 |
| 39.정책당국의 지원 | 1.465 |
| 33.정부 일자리 창출 | 1.434 |
| 37.인식개선 | 1.391 |
| 19.장기적·지속적 지원 | 1.386 |
| 16.종합적 지원 | 1.335 |
| 1.메커니즘의 부족 | -1.008 |
| 20.부적절한 지원 | -1.082 |
| 25.제한적인 진로지도 프로그램 | -1.369 |
| 3.공급자중심서비스 | -1.391 |
| 15.대학의 낮은 인식 | -1.738 |
| 22.역량의 부족 | -1.797 |
| 11.전담인력의 부재 | -2.300 |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대학 내의 이해관계집단의 구성원들이 갖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39개의 진술문 가운데 제1유형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P표본은 P1, P3, P6, P8, P9, P10, P12, P19이며, 이들이 양극단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장애학생의 취업은 산업체의 고용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장애인의 취업지원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P6)

“장애학생은 직업을 갖기에 역량이 부족하지만,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가 이루어진다면 취업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P6)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이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하기까지의 전 과정에 있어서 장애학생의 특성을 알고, 지역 산업체에 취업을 시키고자 하더라도 취업 담당자 혼자서는 장애학생의 취업지원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P8)

“최근 장애학생에 대한 대학의 인식이 상당히 높고, 취업전담기구 및 인력이 갖추어져 있다.” (P9)

“장애학생 취업은 대학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정책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P10)

“장애학생의 취업에 있어서 개인 차원의 접근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P10)

“장애학생 취업 지원에 있어서는 대학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정책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P19)

“대학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이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의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취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에 취업상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을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기에는 이를 지원할 인력이 이미 배치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P19)

[표 7]에서는 39개의 진술문 가운데 제1유형이 다른 유형과 구별되는 특징을 나타내는 진술문으로 Q39를 비롯한 10개의 진술문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들 진술문은 제1유형의 Q소트 값과 나머지 요인 간의 점수 차이가 유의수준(0.05)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Q39, Q1, Q25, Q15, Q22, Q11 등 5개의 진술문은 유의수준이 0.01 이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제1유형'의 특징을 나타내는 진술문

| Q-Statements | Factors | | | | | | | |
|------------------|---------|--------|-----|-------|-----|-------|-----|-------|
| | 1 | | 2 | | 3 | | 4 | |
| | RNK | SCORE | RNK | SCORE | RNK | SCORE | RNK | SCORE |
| 39.정책당국의 지원 | 4 | 1.46* | 2 | 0.58 | 0 | 0.29 | -1 | -0.47 |
| 13.특성에 맞는 훈련과 연계 | 2 | 0.88 | 0 | 0.15 | -2 | -1.20 | -1 | -0.47 |
| 36.추수지도 | 1 | 0.54 | 0 | -0.18 | -2 | -1.20 | -4 | -1.89 |
| 27.취업가능성 파악 | 1 | 0.39 | -1 | -0.40 | -2 | -1.13 | -2 | -0.95 |
| 2.차별적 태도 | 0 | 0.07 | -4 | -1.95 | 3 | 1.62 | -2 | -0.95 |
| 8.지역사회 연계 부족 | -1 | -0.54 | 1 | 0.46 | 1 | 0.42 | 1 | 0.47 |
| 38.위탁훈련 | -1 | -0.56 | 1 | 0.49 | -4 | -1.44 | 2 | 0.95 |
| 12.홍보부족 | -2 | -0.88 | 2 | 0.61 | 0 | 0.24 | -4 | -1.89 |
| 1.메커니즘의 부족 | -2 | -1.01* | 1 | 0.34 | 2 | 1.08 | 2 | 0.95 |
| 25.제한적인 진로지도P | -3 | -1.37* | 1 | 0.27 | 1 | 0.36 | 1 | 0.47 |
| 3.공급자중심서비스 | -3 | -1.39 | -1 | -0.67 | 0 | 0.00 | 0 | 0.00 |
| 15.대학의 낮은 인식 | -3 | -1.74* | 0 | 0.07 | 1 | 0.60 | 4 | 1.89 |
| 22.역량의 부족 | -4 | -1.80* | 0 | -0.21 | -1 | -0.71 | 1 | 0.47 |
| 11.전담인력의 부재 | -4 | -2.30* | -1 | -0.46 | -2 | -1.08 | 1 | 0.47 |

이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1유형은 장애학생 취업의 결정요인을 산업체의 채용 의지와 정책 당국의 지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의존형으로 명명하였다.

3.2 제2유형: 장애친화형(disability-friendly)

제2유형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양극단 진술문 가운데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4)은 Q16과 Q30이며,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4)은 Q2와 Q9로 나타났다.

표 8. '제2유형'에 동의/비동의하는 Q항목과 표준점수

| Q-Items | Z-Score |
|----------------|---------|
| 16.종합적 지원 | 2.258 |
| 30.별도의 교과과정 | 1.739 |
| 4.산업체의 채용의지 | 1.681 |
| 23.취업지원서비스 확대 | 1.372 |
| 31.행재정적 지원 | 1.343 |
| 33.정부 일자리 창출 | 1.126 |
| 19.장기적 지속적 지원 | 1.096 |
| 21.현장중심의 교육지원 | 1.035 |
| 32.성실함과 사회성 기술 | -1.096 |
| 5.물리적 환경 | -1.249 |
| 34.직업재활기관과의 연계 | -1.343 |
| 18.사회적 재할 도모 | -1.557 |
| 9.직업적 방향성 | -1.651 |
| 2.차별적 태도 | -1.953 |

제2유형의 경우, 장애학생 취업지원은 구직상담에서부터 취업정보제공, 진로지도, 취업알선 등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학생의 직업탐색 및 직업 적응을 위한 별도의 교과과정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는 반면,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적 태도는 장애학생의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장애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선호도 등을 바탕으로 직업적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대학 내의 이해관계집단의 구성원들이 갖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39개의 진술문 가운데 제2유형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P표본은 P4, P5, P18이며, 이들이 양극단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장애학생의 취업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더 질 높은 취업처라든지 혜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폭넓은 혜택을 받아야만 취업처 역시도 질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P4)

“물리적 환경이 아니더라도 인성이나 기타 다른 부분들로도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직무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무분석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P4)

“취업에 대한 목표설정이나 취업에 대한 동기가 있어야 노력하게 되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P5)

“신체가 불편한 학생에게 도움을 제공했다는 것만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P5)

제2유형이 다른 유형과 구별되는 특징을 나타내는 진술문은 [표 9]와 같다.

표 9. '제2유형'의 특징을 나타내는 진술문

| Q-Statements | Factors | | | | | | | |
|--------------|---------|-------|-----|--------|-----|-------|-----|-------|
| | 1 | 2 | 3 | 4 | 1 | 2 | 3 | 4 |
| | RNK | SCORE | RNK | SCORE | RNK | SCORE | RNK | SCORE |
| 16.종합적 지원 | 2 | 1.34 | 4 | 2.26* | 2 | 0.73 | 0 | 0.00 |
| 31.행재정적 지원 | 1 | 0.38 | 3 | 1.34 | -1 | -0.36 | 0 | 0.00 |
| 34.취업전담기구 | -2 | -0.95 | 0 | 0.24 | -3 | -1.33 | -2 | -0.95 |
| 6.장애친화적 인프라 | 0 | 0.37 | -2 | -0.98* | 1 | 0.36 | 3 | 1.42 |
| 18.사회적 재할 도모 | 0 | 0.30 | -3 | -1.56 | 0 | -0.11 | -1 | -0.47 |
| 9.직업적 방향성 | 2 | 0.74 | -4 | -1.65* | 4 | 1.68 | 0 | 0.00 |

이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2유형은 장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별도의 교과과정 마련은 물론 장애학생에 대한 취업지원은 구직상담에서부터 진로지도, 직업탐색, 취업알선 등 종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등 장애학생 친화적인 대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친화형이라고 명명하였다.

3.3 제3유형: 수요맞춤형(demand tailored)

표 10. '제3유형'에 동의/비동의하는 Q항목과 표준점수

| Q-Items | Z-Score |
|------------------|---------|
| 7.취업애로사항 최소화 | 1.860 |
| 9.직업적 방향성 | 1.683 |
| 2.차별적 태도 | 1.618 |
| 21.현장중심의 교육지원 | 1.375 |
| 33.정부 일자리 창출 | 1.375 |
| 23.취업지원서비스 확대 | 1.197 |
| 37.인식개선 | 1.132 |
| 1.메커니즘 부족 | 1.084 |
| 36.추수지도 | -1.019 |
| 11.전담인력의 부재 | -1.084 |
| 27.취업가능성 파악 | -1.132 |
| 13.특성에 맞는 훈련과 연계 | -1.197 |
| 20.부적절한 지원 | -1.197 |
| 14.취업전담기구 | -1.327 |
| 24.단기프로그램의 한계 | -1.375 |
| 38.위탁훈련 | -1.440 |
| 30.별도의 교과과정 | -1.440 |
| 35.기관별 역할분담 | -1.683 |

제3유형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양극단 진술문 가운데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4)은 Q7과 Q9이며,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4)은 Q30과 Q35로 나타났다.

제3유형에서는 장애로 인한 취업 애로사항을 최소화 시켜야 하고, 장애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선호도를 바탕으로 직업적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는 반면, 장애학생의 직업탐색 및 직업 적응을 위한 별도의 교과과정 마련이 필요하다거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참여 기관별 명확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대학 내외 이해관계집단의 구성원들이 갖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39개의 진술문 가운데 제3유형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P표본은 P2, P16이며, 이들이 양극단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장애학생에 대한 직업적 방향성 탐색이 이루어져야 취업도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P2)

“장애학생만을 위한 별도의 기구보다는 대학 차원의 취업지원기구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자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며,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P2)

“취업이 중요한 것이지만 먼저 주변 사람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P16)

“장애학생이 보통 사람들과 달리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겠지만 누구보다 일하려는 의지는 비장애학생보다 강할 것이다.” (P16)

제3유형이 다른 유형과 구별되는 특징을 나타내는 진술문은 [표 11]과 같다.

표 11. '제3유형'의 특징을 나타내는 진술문

| Q-Statements | Factors | | | | | | | |
|---------------|---------|-------|-----|-------|-----|--------|-----|-------|
| | 1 | | 2 | | 3 | | 4 | |
| | RNK | SCORE | RNK | SCORE | RNK | SCORE | RNK | SCORE |
| 7. 취업애로사항 최소화 | 2 | 0.59 | 0 | 0.18 | 4 | 1.86 | 1 | 0.47 |
| 9. 직업적 방향성 | 2 | 0.74 | -4 | -1.65 | 4 | 1.68 | 0 | 0.00 |
| 2. 차별적 태도 | 0 | 0.07 | -4 | -1.95 | 3 | 1.62* | -2 | -0.95 |
| 38. 위탁훈련 | -1 | -0.56 | 1 | 0.49 | -4 | -1.44 | 2 | 0.95 |
| 30. 별도의 교과과정 | 1 | 0.40 | 4 | 1.74 | -4 | -1.44* | 2 | 0.95 |
| 35. 기관별 역할분담 | 0 | 0.34 | -2 | -0.73 | -4 | -1.68 | -1 | -0.47 |

이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3유형은 장애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선호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요맞춤형이라고 명명하였다.

3.4 제4유형: 내부역할강조형(internal role emphasis)

표 12. '제4유형'에 동의/비동의하는 Q항목과 표준점수

| Q-Items | Z-Score |
|----------------|---------|
| 10. 대학의 관심 | 1.891 |
| 15. 대학의 낮은 인식 | 1.891 |
| 4. 산업체의 채용의지 | 1.418 |
| 6. 장애친화적 인프라 | 1.418 |
| 33. 정부 일자리 창출 | 1.418 |
| 5. 물리적 환경 | -1.418 |
| 19. 장기적 지속적 지원 | -1.418 |
| 17. 구체적인 행동계획 | -1.418 |
| 36. 추수지도 | -1.891 |
| 12. 홍보부족 | -1.891 |

제4유형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양극단 진술문 가운데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4)은 Q10과 Q15이며,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4)은 Q12와 Q36으로 나타났다.

제4유형에서는 장애학생의 취업을 위해서는 대학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장애학생 취업지원에 대한 대학의 인식이 매우 낮다는 데 동의하고 있지만 장애학생 취업과 관련하여 대학 차원의 홍보가 부족하다거나 추수지도를 통해 지속적인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대학 내외 이해관계집단의 구성원들이 갖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39개의 진술문 가운데 제4유형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P표본은 P21이며, 이들이 양극단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장애학생의 취업지원을 위한 대학 차원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취업알선을 통한 취업연계는 물론 추수지도를 통해 지속적인 고용이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P21)

“장애학생들에 대한 대학의 인식이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장애학생의 취업에 있어서는 대학 차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P21)

제4유형이 다른 유형과 구별되는 특징을 나타내는 진술문은 [표 13]과 같다.

표 13. '제4유형'의 특징을 나타내는 진술문

| Q-Statements | Factors | | | | | | | |
|--------------|---------|-------|-----|-------|-----|-------|-----|--------|
| | 1 | | 2 | | 3 | | 4 | |
| | RNK | SCOPE | RNK | SCOPE | RNK | SCOPE | RNK | SCOPE |
| 10.대학의 관심 | 0 | 0.09 | 1 | 0.30 | 0 | 0.18 | 4 | 1.89* |
| 15.대학의 낮은 인식 | -3 | -1.74 | 0 | 0.07 | 1 | 0.60 | 4 | 1.89 |
| 28.전환교육의 필요 | -1 | -0.12 | -1 | -0.61 | -1 | -0.42 | 2 | 0.95 |
| 37.인식개선 | 3 | 1.39 | 1 | 0.49 | 2 | 1.13 | -2 | -0.95* |
| 12.홍보부족 | -2 | -0.88 | 2 | 0.61 | 0 | 0.24 | -4 | -1.89 |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제4유형은 장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대학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강조하는 있다는 점에서 내부역할강조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인식 유형은 네 가지 유형으로, 이들 인식유형별 특징은 [표 14]와 같다.

표 14. 장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인식유형별 특징

| 구분 | 주요 특징 |
|------------------|--|
| 제1유형 외부의존형 | -장애학생 취업과 관련한 산업체 채용의지를 중요 요인으로 보는 입장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지원 인프라 및 장애학생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입장 -정부차원의 일자리 창출 및 정책당국의 지원 강조 |
| 제2유형 장애친화형 | -장애학생 취업지원은 구직상담에서부터 취업알선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장애학생의 취업지원을 위해 직업탐색 및 직업 적응을 위한 별도의 교과과정 마련 필요성 인식 -장애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선호도 등을 바탕으로 직업적 방향성 설정하는 데에는 부정적 |
| 제3유형 수요맞춤형 | -장애로 인한 취업 애로사항 최소화 요구 -장애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선호도를 바탕으로 직업적 방향성 구축 강조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별도의 교과과정 마련에는 부정적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장애학생 취업과 관련한 참여 기관별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
| 제4유형 내부역할 강조형 | -장애학생의 취업에 관한 대학차원의 관심지원 강조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지원에 대한 낮은 인식 -장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필요성 제기 -취업알선을 통한 취업연계는 물론 추수지도를 통한 지속적인 고용유지 희망 |

V. 논의

본 연구는 장애학생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행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하고, 분석과정을 통해 도출된 인식유형별 특성을 기반으로 보다 실질적인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대학 차원의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결과는 현행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중심으로 장애학생의 취업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별 논의과정을 통해 현행 대학 차원의 장애학생 취업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연구결과 도출된 외부의존형(제1유형)의 특성을 통해 장애학생의 성공적 취업은 장애학생을 채용하게 되는 산업체의 채용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와 더불어 정부차원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장애학생의 잠재력에 대한 강점관점을 기반으로 기존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지원 인프라를 강화시켜 나감은 물론 대학 차원에서 지역 내 산업체와의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는 인력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장애학생 취업 지원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 내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인 취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에 더하여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장애학생 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기반으로 산업체와의 매칭을 통한 취업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직업능력에 대한 평가와 직업 선호도 등 총체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장애대학생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정부 주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장애학생들의 성공적인 고등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친화형(제2유형)의 특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장애학생에 대한 취업지원은 구직상담에서부터 취업알선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학생의 직업탐색 및 직업 적응을 위한 별도의 교과과정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차원에서 장애친화적인 교과과정을 대학 교양에 개설하고, 장애학생이나 비장애학생 가운데 직업탐색과 직업 적응을 위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장애친화적인 교수자의 확보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요맞춤형(제3유형)의 특성을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취업지원은 장애학생 개인의 능력과 선호도를 바탕으로 직업적 방향성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근간은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욕구나 문제 등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회복지의 기본 철학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장애학생들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에 관하여 갖게 되는 주관적 인식이나 태도, 의견 등은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등을 마련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대학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진로설계 및 취업지원을 위한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내부역할강조형(제4유형)의 특성을 통해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지원에 대한 낮은 인식을 제고시키고, 취업지원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취업알선을 통한 취업연계는 물론 추수지도를 통한 지속적인 고용을 희망하는 장애학생들에게 노동시장 진입을 통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학 차원의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행·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기능을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대학 예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지원센터에서도 비장애학생에게 맞추어진 현행 취업지원 시스템을 장애학생 등 취업에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취업지원과 관련한 업무 조직 및 운영 체계를 장애친화적인 조직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연계는 물론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공 분야의 전문가가 취업지원 업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일반적으로 장애의 발생 원인은 선천적 요인보다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진학하는 장애학생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학생 취업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구성원들이 갖는 주관성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대학 차원의 장애학생 취업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진행된 본 연구는 대학에서 제공되고 있는 장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대학 내외 구성원들이 갖는 주관적인 인식 유형을 도출하였으나, 사실상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다시 말해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대학 지원 모형 연구 등과 같은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가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지원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문대학의 기본 설립 목적이 국가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에 있고, 여기에는 장애라고 하는 요인의 유무는 크게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도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한 구성원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국민으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향유함과 더불어 좀 더 구체적인 권리의 향유로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꿈꾸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진학한 장애학생에 대한 대학의 취업지원은 어찌 생각하면 대학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본 연구는 장애학생에 대한 대학의 관심과 지원의지가 장애학생 취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대학으로 하여금 이를 수용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애학생에 대한 대학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위한 의지가 보다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곧 장애학생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본 연구 수행의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1] 정정진, 강병근, 김원경, 김정열, 박광재, 성기창, 이해근, 황도순, 이유훈, *대학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및 학습권 보장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3.

[2] 남정휘,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직업유지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3] 이재환, 김용준, 이인순, 이수경,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14.

[4] P. Taubman and T. Wales, *Higher education and earning: college as an investment and a screening device*, New York: McGraw-Hill, 1974.

[5] 유동철, *노동시장의 장애인 차별 영향분석: 지적장애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6] 강동욱, “한국 장애인의 노동시장의 단층구조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50권, pp.157-172, 2002.

[7] R. Melin and A. R. Fugl-Meyer, “On predict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outcome at a Swedish employability institute,” *Journal of Rehabilitation Medicine*, Vol.35, No.6, pp.284-289, 2003.

[8] T. M. Buttrfield and J. H. Ramseur, “Research and case study findings in the area of workplace accommodations including provisions for assistive technology: A literature review,” *Technology and Disability*, Vol.32, No.1, pp.201-210, 2004.

[9] J. Kennedy and M. F. Olney, “Factors associated with workforce participation among SSDI beneficiar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Vol.72, No.4, pp.24-30, 2006.

[10] T. J. Achterberg, H. Wind, A. G. E. M. de Boer, and W. H. Frings-Dresen, “Factors that promote or hinder young disabled people in work participation: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Vol.19, No.2, pp.129-141, 2009.

[11] *교육과학기술부, 제2회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포럼: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방안*, 2011.

[12] <http://www.law.go.kr>

[13] 석말숙, 강동욱,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12권, 제6호, pp.171-194, 2005.

[14] 김자경, 강혜진, 김주영, “장애대학생의 불안, 우울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8권, 제4호, pp.461-476, 2007.

[15] 정정진,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체제 개선 방안”,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8권, 제1호, pp.109-132, 2007.

[16] 공마리아, 강윤주, “장애대학생의 장애수용과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재활심리연구*, 제17권, 제3호, pp.1-23, 2010.

[17] 서선진,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전환-적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장애대학생들의 대학입시준비 및 대학적응 경험을 중심으로”, *재활복*

지, 제14권, 제1호, pp.31-53, 2010.

[18] 박영근, 조인수, “지적장애학생의 취업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주요기술 관련 특수교사 인식”, 재활복지, 제17권, 제4호, pp.245-265, 2013.

[19] 김홍규, *Q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커뮤니케이션북스(주), 2008.

[20]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기관 진로·직업 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2007.

[21] 교육부,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2011.

[22] 윤상은, *고학력 장애인의 직업관련 인식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23] 이정애, 최용용, “대학생의 진로목표 추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의 구조관계분석”, 진로교육연구, 제23권, 제2호, pp.101-121, 2010.

[24] 김동일, 손지영, 심성용, 김수정, 이주명,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제50권, 제2호, pp.387-413, 2011.

[25] 김동일, 이기정, 김원호, 신재현, “장애대학생의 취업준비도 측정: 비장애 대학생 집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제12권, 제3호, pp.915-929, 2011.

[26] 김원호, 조항, “장애 대학생을 위한 예비 진로설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취업진로연구, 제2권, 제1호, pp.21-44, 2012.

[27] 조주현, “장애인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주 인식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4권, 제4호, pp.351-378, 2003.

[28] 박혜진, *교육에서 고용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과제연구*,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012.

[29] 박혜진, “장애인 취업활성화를 위한 직업적응훈련 서비스에 관한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제3권, 제1호, pp.1-28, 2014.

[30] 정정진, 이해균, “대학 장애학생 교육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7권, 제1호, pp.507-533, 2006.

[31] 김은실, 손현동, “장애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질적(CQR)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10호, pp.149-178, 2009.

[32] 이재환, 이수경,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대학 내 이해관계집단의 인식유형”, 한국콘텐츠학회, 제12권, 제11호, pp.183-198, 2012.

[33] 이재환, “노인 장기요양인력 양성체계에 관한 인식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8호, pp.172-184, 2014.

[34] G. C. Thompson, *The evaluation of public opinion*. In B. Berelson and M. Janowitz (eds.), *Reader in public opinion and communication*, 2nd ed, New York: Free Press, 1966.

[35] 이재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인력 양성체계에 관한 인식유형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저 자 소 개

이 재 환(Jae-Hwan Lee)

정회원



- 2014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8년 3월 ~ 2011년 2월 :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순천제일대학교 사회복지과 조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노인·장애인복지)

성 혁 제(Hyeok-Je Sung)

정회원



- 2001년 2월 :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공학박사)
- 2006년 8월 :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전공
- 1993년 3월 ~ 현재 : 순천제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